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아모스서 강해

재앙의 날이 다가오는 때

(아모스 3:9-15)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담임)

누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이 재앙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통고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 재앙의 성격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군인들과 지도자들이요, 둘째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셋째는 부자들에게 입니다. 이에 더한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만나게 될 때 원수들까지 그 소식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고 심판을 받는 것도 괴롭고 아픈 일인데 거기에 더하여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저들의 괴로움은 더욱 심할 것입니다.

1. 심판 중의 긍휼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3:12).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의 사상을 신학적 용어로 '남은 자(remnant)' 사상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 사상이란 남은 그루터기가 다 불타고 다 잘려서 뽑힘을 받아 모든 것이 끝나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은 줄 알았더니 거기에 남은 조각이 있고 남은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목자가 사자와 싸워서 양의 두 다리와 귀 조각을 겨우 건져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남은 자를 건져내십니다. 사자가 어린 생명들을 처참하게 잡아먹듯 심판이 무섭게 임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사자의 입속에 들어가 다 삼켜진바 된 중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두 다리와 귀 조각을 잡아 꺼냈으니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구원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2. 피할 수 없는 재앙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아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3:15).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실 때는 인간의 노력도 소용없고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보려고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봅니다.

첫째, 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공호가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 곳으로 피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방공호는 물질이었습니다.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여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11절).

여로보암 왕 때 이스라엘은 물질적인 풍요를 구가했습니다. 두꺼운 방벽, 물질의 담벼락을 해놓으면 못 막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전벽이 안전을 보장하기에 적합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안전지대는 거룩한 신전이나 제단이었습니다. 희생 제물이 있는 제단에 매달려 그곳에 숨으면 재앙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단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들의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던지, 또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형편없었던 것인지,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더러웠던지 하나님은 이 예배는 토해버리셨습니다. 위선적이고 가증되고 더러운 예배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도적질한 옷을 입고 술에 취해 하나님 앞에 나와 아무리 경건한 체 예배를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가 진정으로 헌신된 것이 아니므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집을 안전지대로 생각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안온하게 거할 수 있는 집으로 가서 종들을 자유하게 하고 문들을 걸어 잠그며 침대에 누워 편안히 쉬자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안락을 꾀하며 쾌락을 좇으면 거기서 구원이 오는 줄 알고 그것이 곧 안전지대인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적 성공이 하나님께 받은 복인 줄 알고 그것에 안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며 그 곳에 재앙을 부으십니다.

물질적인 방어벽으로 우리를 감싸고 거짓 종교적 행위를 한다 해서 그것은 결코 우리의 방공호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이 땅 위에 우리가 숨을 곳은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 마지막 재앙의 날, 곧 심판 날에도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이 재앙을 모면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만이 이 재앙 가운데서 보호를 받으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심판자의 무서운 심판의 칼을 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이며 하나님의 자비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안락과 쾌락의 길에서 돌이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며 평안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 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오늘 '아가페 타운' 건축헌금 드려

헌금봉투에 가족 이름 꼭 써 넣으세요

오늘 우리는 그 동안 눈물로 기도하여 응답받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10,227 평의 대지 위에 이 땅의 소외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종합 복지타운–사랑의 마을을 건립하기 위한 '아가페타운 건축헌금' 을 드린다.

성도들은 지난 주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아가페타운 건축헌금 봉투' 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리거나, 본인과 가정에서 작정한 금액을 기재하여 헌금시간에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다.

교회는 교회당 5층 복도에 전시된 교회당 건축 헌금자 명단과 유사하게 동판을 준비하여 헌금한 성도들과 가족들의 이름을 새겨 성도들이 바친 귀한 헌금을 후대에 기억되게 한다.

따라서 오늘 드리는 건축헌금 봉투에는 반드시 성도 본인과 가족들의 성명을 빠짐없이 적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

주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기 위해 진력하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한다.

아가페 타운 리모델링 – 착공 감사예배

7월7일(월) 오전 11시 현장에서

'아가페타운' 리모델링 착공 감사예배를 7월7일(월) 오전 11시 이종윤 목사의 인도로 현장에서 드린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수련회를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응답받은 아가페 타운에서 하기로 한 당회 결의에 따라, 모든 교회학교가 수련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공사이다.

착공 감사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우리가 응답받은 이 땅에 세워질 주님의 비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아가페타운 본관동 건물

맥 추 감 사 절

7월6일(주) 주일예배 시간에 성찬식
찬양예배 시간에 교육1국 어린이들의 특별찬양

7월 첫 주일이 되는 다음 주일은 우리교회가 맥추감사절로 지킨다. 맥추감사절은 밀 · 보리 수확, 곧 금년에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 감사하는 절기이며, 봄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서 유대민족들은 유월절 다음날로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로 지키며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날이며 오순절 성령강림의 날로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하다.

우리교회는 이 기쁜 맥추감사절 주일예배 시간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

또한 찬양예배 시간에는 교육1국(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 어린이들이 준비한 특별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추감사절을 준비하도록 기도한다.

3기 기타강습 열린다

7월 6일(주) 오후 3시 – 903호 (10 주간)

3기 기타강습이 열린다. 기타강습은 7월6일(주) 오후 3시 903호에서 개강하며 10주 동안 계속된다.

초급반(처음 시작하시는 분)을 모집하며 찬송가, 복음성가의 기타 반주법을 배우게 된다.

선착순 20명을 접수하며 기타와 발판(단체구입)그리고 교재비 10,000원을 준비하면 된다.

강사로는 우리교회 장윤식 집사가 선다.

2008 홍해작전 – 승전감사예배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6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 동안 계속되었던 말씀과 기도의 대장정 2008 홍해작전이 지난 25일 새벽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승리를 감사하며 떡잔치를 가졌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2008홍해작전을 은혜 중에 마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승전감사예배로 드린다. 이번 홍해작전은 교구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구별로 출석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 1, 3 교구가 가장 우수하였고, , 5, 14 교구와 9, 13 교구가 .그 뒤를 이었다. 20일 완전 출석한 가정(2인 이상)에는 벽시계가 수여된다.

또한 홍해작전 기간 중 5행시(주제: 아가페타운, 사랑의 마을) 71편이 응모되어 심사결과 수상작 4편을 선정하여 본지 4면에 게재한다.

제 1기 기도학교 수료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지난 3월 13일 개강하여,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성경적 기도의 영성', '나에게 맞는 기도 모델 발견하기', '영적전쟁과 기도' 등의 내용으로 4개월간 진행된 기도학교가 종강하여 수료식을 갖는다.

제1기 수료생들은 기도학교 과정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기존의 화요, 목요 기도팀에 보충되고 수요오후 기도팀(수요 오후 1시 30분, 603호)을 신설하여 기도사역에 헌신키로하므로 많은 감동을 주고 있다. 제 2기 기도학교는 9월 4일 개강한다. 제 1기 수료자는 다음과 같다.

곽선자1 김경진1 김명심1 김보경 김양숙 김영식
김혜중 노인숙 박미현2 박정순1 배정자 손성실
송영빈 신금전 오은이 윤소영 이미연1 이민숙
이봉선 이영자8 이인선 이인숙2 이자혁 이채봉
이천애 정경자 정복순1 정선경 정정숙 조경아
조영자 조정옥 주화인 허현숙 홍란희 홍정란

총 36명

헌금봉투에 구멍이?

헌금봉투에 구멍이 뚫려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많다. 그 이유는 지난 해부터 사용하고 있는 새 화폐가 구권보다 크기도 작고 얇아서 성도들의 헌금이 간혹 말리거나 깊이 들어가 잘 안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에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귀중한 헌금을 잘 확인하기 위해 헌금봉투에 구멍을 뚫어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순례자–

홍해작전을 마치고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사람들

양춘경 집사(제1스데반 회장)

그동안 홍해를 향해.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며 무릎과 가슴으로 온 교회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로 행진하여 개인과, 가정, 국가가 홍해를 가르며 승전의 개가를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전한 우리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진행시킬 것입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풍성하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매번 힘들고 어렵게 지나온 홍해였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으로 변하여지고 값진 추억으로 마음에 새겨집니다. 크고 작은, 지나온 홍해를 생각하면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잘 건널 수 있었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 집니다.

홍해를 건널 때마다 쌓이고 또 쌓인 하나님과의 신뢰가 지금은 믿음으로 단단히 승화되어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홍해는 갈라졌지만 이제부터 시작임을 마음속깊이 다짐 해봅니다. 금번 홍해작전 중에 우리는 촛불집회가 멈춰 달라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멈출 수 있다고 위임목사님께서 간구 하실 때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촛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국가의 홍해, 교회의 홍해, 가정의 홍해, 개인의 홍해를 잘 건넜으니 한층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숙한 크리스천이 될 것을 믿습니다.

김경태 (대학부)

8월 군 입대를 앞두고 많은 생각이 들었고 특히 지금까지의 내 삶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마침 홍해작전이 시작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신 비전을 세우고 기도하기 위해 고3인 동생과 함께 홍해작전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그렇듯이 6월중에 있는 기말시험 때문에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직업과 재물에 대해서 줄곧 생각하게 되었는데, 20일 째 날에 크리스찬의 정의로운 삶과 그 삶을 살기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천방안으로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일이란, 자신이 누리고 노후를 편하게 지내기 위해 재산을 쌓는 수단이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일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직업관과 물질관을 바로 갖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일 동안 자유, 평화, 정의를 주제로 세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매일 새로운 말씀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홍해를 건넜으니 다가오는 광야에서도 더욱 큰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박지원 (중등부)

제가 홍해작전을 처음으로 알고, 참여하게 되었던 건 초등하교 5학년 때 입니다. 새벽기도는 어른들만 참여하는 줄 알았던 저에게 홍해작전은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졸린 눈을 비비며, 부모님과 함께 새벽기도 가던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찬양대를 하는 날이면, 혼자 새벽에 교회 가는 것도 특별한 추억이었습니다.

6학년 때까지 성실히 다니다가, 집은 오히려 가까운 곳으로 이사 왔는데, 공부라는 핑계로 한 번, 두 번 빠지던 것이 작년, 중학교 2학년 때에는 시험기간이라고 아예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었습니다. '숙제 때문에 할 수 없잖아', '시험도 잘 봐야하는 거잖아'라며 새벽기도를 참석하지 못하는 날엔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곤 했습니다. 그 때에는 왜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없었을까요. 그냥 어리다는 핑계로 국가가 처한 어려운 현실, 교회의 역할을 간과한 것은 아니었나,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 중등부 헌신예배를 드릴 때 이종윤 목사님께서 중등부 학생들도 홍해작전에 반드시 참석하라시는 말씀을 듣고 이번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처음 홍해작전 나갔을 때만 해도 기도카드의 기도 외에, 개인기도 시간에는 국가의 범위까지 기도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조금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홍해작전을 참석하려고 생각했을 때만 해도 제가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새로 나아가게 될 세상 앞에서 주님의 딸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지원'이가 되자는 것과 중등부가 교회의 사명에 한 몫을 담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가족의 건강만을 기도제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보니 어느새 통성기도시간이 2~3분에서 5분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이번 홍해작전에서는 기도가 구체적이 되어진 것 같아 이것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학교 마지막 학년을 홍해작전으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천국시민 양성-기도학교를 마치고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

홍정란 집사(3교구)

기도학교에 불러주시고 4개월 동안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여 있는 물처럼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쓰임 받는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12강을 공부하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닫기 시작했으니까요. 모태신앙으로 자란 나는 늘 새벽기도회를 다녀오신 후 머리맡에 앉아 기도해주시고 성경을 읽으시던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그 모습과 성경 속에 나오는 다양한 기도의 모습들, 그리고 교회생활 가운데의 자연스런 익힘. 그것이 나의 기도의 모습이었는데 이번 기도학교를 통해 구체적이고도 세밀하게 공부하게 되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순종하고 참석한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장석남 목사님의 기타반주에 맞추어 뜨거운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전도팀과 기도팀 우리 1기생 모두 함께 기도한 후 목사님의 농축된 열강!

쉬는 시간도 없이 2시간 반을 꼬박 서서 진행하시는 모습과 열정에 결석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도의 의미와 근거, 필요성, 목적, 요소, 기도의 종류와 영적능력, 기도자의 자세, 장소와 시간, 신구약 성경에 나온 기도의 사례들, 종횡무진 열정의 강의를 듣다보면 어느새 시계가 저만치 가버렸지요.

매 순간 순간의 삶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크고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으며, 기도에 대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생각하고 배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부하는 동안 서로 힘이 되어주고 배우는 기쁨을 함께한 우리 1기가 작은 열매로 노방전도팀들을 위한 기도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신실한 믿음의 기도로 섬기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해봅니다.

홍해작전

홍해작전 오행시 당선작

■대 상 13-22 다락방

아 아름다운 서울교회
가 가족만 다니게 할 수 없죠
폐 폐달을 밟으며 힘차게 나가서 전도해요
타 타인이나 어린이도 상관없어요
운 운행하시는 하나님 말씀, 서울교회여! 전하자

■은 상 2-10 다락방

아 아름답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행하는 서울교회
가 가슴으로 타오르는 예수님 사랑이 흘러흘러
폐 페이지마다 아픈 마음 새 순 돋고
타 타다남은 부지깽이같은 나도 쓰소서
운 운동력 있는 주님 말씀 길이 길이 섬기네

■금 상 13-33 다락방

사 사랑은 백 번 주어도 아깝지 아니한 것
랑 랑낭 낭떠러지 위험타 하여 내 한 몸 살필소냐
의 의리로 교제하고 도리로 공경하며
마 마음으로 이웃을 사모하라 하셨으니
을 을도 갑도 하나님 백성 어찌 사랑 안하리

■동 상 3-9 다락방

아 아름다운 사랑이여
가 가이없는 긍휼이여
폐 폐놀처럼 아린가슴
타 타이르고 어루만져
운 운치있는 주님 동산

특 별 찬 양

그동안 찬양예배에는 외부의 저명인사 초청과 함께 우리 교회내의 음악인들 그리고 각 찬양대들도 참석 하여 모두가 합동하여 찬양을 드려왔는데 오늘 저녁에는 가브리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린다.

그동안 잘 훈련된 소리로 훌륭한 앙상블을 이루며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는 가브리엘 찬양대는 합창과 함께 특별히 바이올린 (박선영), 호른 (최우영, 이현우) 등을 곁들여 시편 150 편 (L. Lewandowski 곡) 외에 2곡으로 찬양 드린다.

오르간 반주에 박준호, 피아노에는 백송희 선생이 수고 한다.

아가페 타운 관리인 모집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경비와 관리를 같이 하실 분을 교회 내외에서 찾고 있다. 사택 제공으로 현지에서 숙식이 가능하다. 문의는 사무국으로 하기 바란다.

여기는 아가페 타운 현장

내장재를 옮기며...

여기가 식당

본관 2층 복도

내장 공사 중

실버타운으로 가는 길
좌측 건물은 체육관으로 변신예정

◀ 폐자재를 옮기며

넓디 넓은 대운동장

동정

■ 이종윤 목사는 30일(월) 한국기독교학술원 특별위원회를 소집한다.

■ 개업: · 최정필 성도 홍지민 성도 가정 동탄농원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T.031-613-3133
· 하영숙 집사(1교구) (주)알파엔 두마 강남구
신사동 651-8 하늬솔 B/D 3층 T.542-1638

■ 전시회: 김환경 성도(7교구) 작품전시회(청목 김환경 작품전시회) 롯데미술관(롯데백화점 본점 1층) 6/27-7/16

■ **주간 식당 봉사**: 모세선교회(6.29) 도르가전도회(7.6)

■ **금주의 식사** : 이병헌 집사 채경희 권사 가정
이승우 집사 서경숙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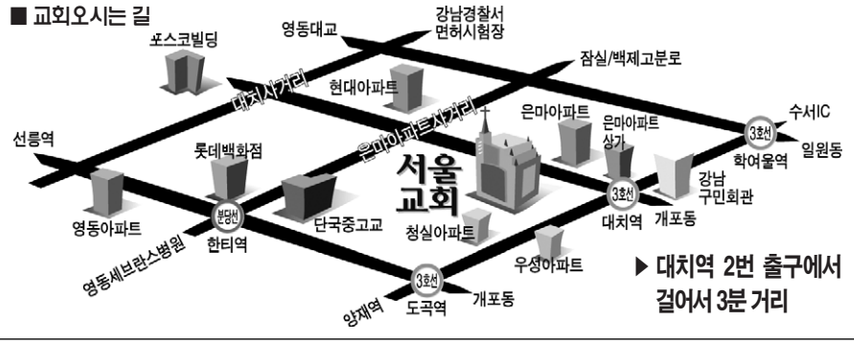
구 분		시 간
주 일 예 배	Ⅰ부	오전 9시
	Ⅱ부	오전 11시 20분
	Ⅲ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Ⅰ부	오전 11시
	Ⅱ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올해 안에 한 가정 이상 전도하게 하소서.
2. 아가페 타운 건립에 방해꾼 없도록
3. 홍해작전 승전을 감사하며 계속 승리하도록
4. 정국이 안정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